

001-005

블래키스톤 물고기잡이 부엉이

블래키스톤 물고기잡이 부엉이는 전체 길이 70cm, 날개를 펼치면 약 180cm 나 되는 세계 최대급 부엉이로, 멸종위기종입니다. 삼림 벌채로 블래키스톤 물고기잡이 부엉이가 동지를 틀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줄어들고 있지만, 엄중한 보호, 관리를 통해 시레토코 반도의 삼림에는 안전한 서식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. 블래키스톤 물고기잡이 부엉이는 거목의 움푹 팬 곳에 동지를 틀며, 얕은 강에서 물고기나 개구리를 잡아먹습니다. 라우스초를 방문했을 때 해 질 녘 이후 동지를 떠나 사냥하러 가는 블래키스톤 물고기잡이 부엉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.

블래키스톤 물고기잡이 부엉이 감상

다른 야생 동물과 마찬가지로 부엉이를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, 수년간의 관찰을 통해 행동 패턴을 파악했습니다. 블래키스톤 물고기잡이 부엉이는 동지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고, 정기적으로 같은 사냥터에서 돌아옵니다.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블래키스톤 물고기잡이 부엉이는 해 질 녘 이후에 활동합니다. 11 월에는 해 질 무렵에 나타날 때가 많으며 번식기인 2 월과 3 월에는 더 늦은 오전 1 시 무렵에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.

블래키스톤선: 종의 경계선

블래키스톤 물고기잡이 부엉이의 영어 이름(*Blakiston's fish owl*)은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에 있는 쓰가루 해협을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생물 지리학적 경계선인 「블래키스톤선」에서 유래했습니다. 이 선보다 북부에 사는 동물은 북아시아 종과 관련이 있고 대형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, 이 선보다 남부에 사는 동물은 남아시아 종과 공통점이 많고 소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블래키스톤선이라는 이름은 이 경계선을 처음으로 발견한 영국의 탐험가이자 박물학자 Thomas Blakiston(토마스 블래키스톤: 1832~1891)에서 유래했습니다.